

# ‘종전 · 비핵화 실현 합의’ 지역민 환영

남북 정상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키로 합의한 27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평화의 대장정을 기대했다.

남과 북은 이날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썼다”고 입을 모았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는 “남북이 상생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상을 꿈꾸는 것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21세기 우리민족의 번영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다”며 “우리 모두에게 울컥한 뜨거움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강인한 역사생명체를 의미한다. 21세기 통일 한국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반도 전쟁위험까지 겪은 상황에서 이런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화와 번영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현 정부의 최대 목표는 ‘관계정상화’다. 국제사회에서 2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공식화해 북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일겠다는 것이다”며 “두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주고 받은 것은 국가 간 관계에서의 상호성과 호혜성을 완성한 상징적 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대민처럼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대표부가 현안을 풀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민족 2국가 2체제’ 전제 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국제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현실적·합리적 해법이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비무장 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구하고, 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안정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통일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미경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역사적 순간이다.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총성없는 전쟁’과 같은 대결 국면이 지속됐는데 연초부터 평창올림픽을 거쳐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흘러온 시간이 곧 역사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들을 잘 이행해나간

## “평화 · 공존 · 번영 새 이정표 세운 역사적인 날”

### “남북 상호 존중으로 진정한 공동 번영시대 열자”

다변 정치·경제·군사·문화·노동 진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발전할 것이다”며 “이제 남북의 노동자·농민 등 각계각층이 자주 만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같은 민족임을 확인해야 평화와 통일도 가까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주석(37·교사)씨는 “과거 남북정상회담 장면을 봤을 때는 큰 감흥은 없었다. 이번에는 회담 합의문 문구를 하나씩 읽어보며 역사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김재준(30·회사원)씨는 “합의문 내용이 이행된다면 표어에서 보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성류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아 신기하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국가와 지역경제가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소영(30·여·회사원)씨도 “평화·공존·번영의 새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에서 정전 체제를 마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남북의 진정한 동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약속 이행’으로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시대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호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분단사를 끝내고 평화와 민족화해

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남과 북이 함께 작은 약속부터라도 이행해나가는 것이 남북 화해·교류협력·평화 통일로 가는 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이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집행위원장은 “남과 북이 상호 신뢰 속에서 대화할 때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됐던 과거의 경험을 국경철화에 담아 법과 제도 차원에서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한 엄중한 입장 차가 있지만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선언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일시적인 난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이 차이점은 존중하고 공통점을 추구하면서 대화한다면, 남북 관계 대전환 시대가 빠르게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철거되는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난 뒤 단원과 아이들의 영정과 추모품이 있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 11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시위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유가족이 농성 11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졌다.

29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정성욱 선체인원분과장(단원고 고 정동수군 아버지)이 단식 농성 중 쓰러졌다.

정 분과장은 지역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밀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7일 사발한 뒤 부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 분과장은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진실 규명을 은폐·방해한 의혹을 받는 황진원 제2기 특조위원과 이동근 선체조사위원의 시위를 요구했다.

또 “항적 실험을 은폐한 이 위원 은 물론 김영모·김철승·공길영 선체조사위원도 공모자라며 5월부터 시작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황 특조위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으며, 이 선체조사위원은 2014년 검찰과 해수부가 관여한 실험 책임자로

그동안 실험 사실을 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년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해수부는 한국해양플랜트연구소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침수실험을 10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검찰이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한 ‘증거추, 과적, 고박불량, 조타미숙’과 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을 낳고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김영모·김철승·공길영 위원도 세월호 침몰 침수 실험을 알고 있었으나 진실을 감추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세월호 가족 등은 반발하고 있다.

## 공사현장서 담벼락 무너져 1명 부상

28일 오전 10시47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공사현장에서 2m 높이(추정)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A(76)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인부들은 주택 철거를 마친 현장에서 지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낙찰계 11개 운영 갯돈 가로챈 60대 여성 구속

낙찰계 11개를 운영하면서 갯돈 수십 억원을 챙겨 도주한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A(66·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낙찰계 11개를 운영하면서 계원 27명이 낸 갯돈 21억8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갯돈을 넣지 않거나 허위의 계원이 낙찰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다고 경찰은 전했다.

## 동창생 누명 씌워 합의금 뜯은 일당 검거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A(23)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23·여)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인 C(23)씨에게 접근해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해 동네 여자 후배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C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재웠다.

A씨 등은 다음날 오전 3시에 C씨가 잠에서 깨자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3차례에 걸쳐 2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모텔 CCTV영상 분석을 통해 A씨 등이 불러낸 후배들이 C씨를 모텔에 부속시킨 이후 곧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 이들을 추궁해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이후 후배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75만 원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 고객 투자금 빼돌린 증권사 간부 구속

고객의 11억원대 투자금을 수년간에 걸쳐 빼돌린 증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객 A씨가 투자한 11억원 가량의 돈을 빼돌린 증권사 부장 박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경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A씨의 계좌에서 150여차례 돈을 빼돌렸다.

박씨는 A씨가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출금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보유 주식이 감소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박씨가 속한 증권사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에서 박씨에게 제차 확인하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 인천공항 쓰레기통서 금괴 7개 발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보안구역)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1kg짜리 금괴 7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안구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반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뉴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묘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